SECTOR
UPDATE

2026. 3. 16.

EV/모빌리티팀

임은영 팀장
esther.yim@samsung.com

김현지 Research Associate
hyunzi.kim@samsung.com

▶ 종목 정보

현대차 (005380 KS, 517,000)		
목표주가	800,000원	54.7%
BUY		
기아 (000270 KS, 164,300)		
목표주가	270,000원	64.3%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자동차 (OVERWEIGHT)

1월 유럽 전기차: IAA는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까

- 1월 유럽 전기차 수요는 32.9만 대(+21.4%YoY)기록. 총수요는 96.1만 대(-3.5%YoY)로 부진. 전기차 침투율은 34.3% 기록.
- 전기차시장에서 VW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전기차와의 격차는 불과 2%p 차이. 테슬라는 M/S 2.8%. 현대차/기아의 M/S는 7.0%.
- EU는 중국 전기차를 막기 위한 두 번째 정책으로 IAA를 추진. 유럽 완성차업체의 쇠락과 중국 업체와의 협력 상황은 현대차/기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

WHAT'S THE STORY?

전기차 수요 성장세 확대: 중국의 전기차 수요와 대비되어 유럽의 성장세 가속화. 중국의 전기차업체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

- **1월 유럽 전기차 수요:** 32.9만 대(+21.4%YoY)로 침투율 34.3% 기록. 전체 유럽 시장 수요는 96.1만 대(-3.5%YoY).
- **중국의 수요 둔화 vs 유럽의 수요 고성장:** 중국의 1, 2월 전기차 수요는 각각 59.6만 대(-19.9%YoY) 및 46.4만 대(-32.2%YoY).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이 가능한 상황.
- **중국 자동차 수출, 전기차가 50% 비중:** 중국 업체는 내수 시장의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의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수출 추진. 2월 전기차 수출은 28만 대(+115%YoY)로, 50.9% 비중. 가장 큰 수출 시장은 유럽. EU는 중국 전기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계관세(10% 수입 관세와 별도: 업체별로 17% ~ 35.3%) 부과.

EU의 IAA, 중국 전기차를 막기위한 두 번째 정책: EU와 중국 정부는 상계 관세 대신 최저 가격제 도입을 협의 중. 이와 별도로 2027년부터 EU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발표.

- **FTA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인정:** EU 내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부가가치가 70% 이상 생산된 차량에만 보조금 지급. 미국의 IRA와 가장 큰 차이점은 FTA 체결 국가를 EU 역내로 인정해준다는 점. 2027년 시행이지만,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적용. 현대차/기아는 유럽 전기차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
- **유럽 완성차업체, 중국에 의존도 증가 중:** 유럽 1위 업체인 VW(M/S 26%)은 샤오펑의 지분 5% 취득 및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을 VW전기차에 탑재. 유럽 2위 업체인 스텔란티스(M/S 17%)는 립모터와 JV(스텔란티스 점유율 51%)를 설립하였으며, 유럽에 40개 딜러점 오픈. 또한 샤오펑, 샤오미에 마세라티 브랜드 매각 및 유럽 공장 매각 검토 중.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업체별 실적: BYD(+111.3%YoY)로 고성장 지속 및 테슬라의 3배 수준 판매. VW(+19.4%YoY), 포드(+77%YoY), 현대차(+16.5%YoY) 증가. BMW(-10.9%YoY), 테슬라(-5.3%YoY)와 Geely(-10%YoY), 기아(-6%YoY)감소.

- **테슬라 M/S 2.8%(-0.8%pYoY)로 위축:** 1월 판매 9,314대(-5.3%YoY)로, 부진 지속. FSD는 네덜란드에서 먼저 허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 기대. 중국보다는 FSD 확산이 늦어지면서, 테슬라는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
- **VW, M/S 24.6%(-0.4%pYoY)로 1위 수성:** 1월 판매 81,095만 대(+19.4%YoY)로 고성장 지속. 테슬라 판매 부진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ID.3와 ID.4 판매 호조, 2025년 하반기에 출시한 ID7가 월 6~7천대 판매. 소프트웨어 문제와 디스플레이의 UI 문제를 해결하였고, 왜건 모델도 제공하여, 가족 단위와 법인차 시장에서 인기. 독일에서 법인 대상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 VW은 2.5만 유로 저가 전기차인 ID.2(LFP 배터리 장착)를 2026년 초에 출시할 계획. VW은 자율주행 기술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리비안과 중국에서는 샤오펑과 협업.
- **BYD, M/S 8.6%(+3.7%pYoY) 및 4위 업체로 도약:** 1월 판매는 28,300대(+113%YoY)로, 2배 이상의 성장세 지속. 2025년 말까지 딜러점 1천 개 개설 및 2026년에는 2천 개로 확장 목표. 유럽에 출시한 모든 모델이 NCAP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 획득. 2026년 1월에 Dolphin Surf 출시. 베이스 트림의 가격이 19,990유로로, 테슬라 모델3 대비 50%.

  BYD는 2026년 하반기에 헝가리 공장 가동 예정으로, 보조금 수취를 위해 유럽 내에서 Value Chain 구축 예상. 2027년 가동되는 터키 공장(Capa 15만 대)의 경우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터키에서 생산 시 역내 생산 불인정.
- **중국 전기차(BYD포함), M/S 22.6%(+5.7%pYoY):** 1월에 74,641대(+62%YoY) 판매로, VW 대비 6천대 차이. 업체별로는 BYD가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 업체 판매를 견인했던 Geely와 SAIC은 점유율 둔화. Geely와 SAIC은 금융위기 이후 인수했던 볼보와 MG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성장했지만, 신모델이 없어 점유율 둔화. 그 외 Chery, 니오 등이 판매 증가.
- **현대차/기아, M/S 3.3%(-0.1%pYoY)/3.6%(-1.1%YoY):** 1월에 판매는 현대차 11,032대(+16.5%YoY)/기아 11,951대(-6.2%YoY). 현대차는 아이오닉 5N, 캐스퍼가 견조한 판매를 기록 중이나, 산업 수요 성장률은 하회. 기아는 2025년 9,10월에 EV4, EV5를 출시하였으나, EV6의 모델 노후화로 판매 둔화.
- **기아, 2026년 3월 부터 5개 전기차 라인업으로 고성장 예상:** 기아의 2026년 유럽 판매 목표는 전기차 판매 고성장을 기반으로 59.4만 대(+11%YoY)로 제시.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2025년 8월부터 EV4, 2026년 2월부터 EV2 생산. EV3는 2025년 2월부터, EV5와 PV5는 10월부터 한국에서 수출. 2026년에 5개 차종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현지 생산 차종은 보조금 수혜 예상. EV3의 가격은 58.3Kwh 기본형이 3.6만 유로, EV2의 가격은 2만 유로 후반 수준 예상.

참고) 주요 국가 전기차 부양책

2025년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수요 부양책 재도입: 독일은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에 이어 리테일 전기차 보조금도 재도입.

- **독일, 2025년 7월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 실행:** 1)2025년 7월~2028년 말까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조기 감가상각(첫해 40%, 둘째 해 24% 등 총 6년에 걸쳐 상각) 허용. 2)법인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40%까지 세액 공제(최대 9.5만 유로) 3) 203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4) 법인 전기차를 임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의 0.25%만 소득세로 부과. 내연기관차의 경우 1%.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전기차 수요에서 법인 차량 비중은 40%. 2025년에 독일의 전기차 수요는 88.5만 대(+51.8%YoY) 기록.
- **독일, 2026년에 개인 구입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재도입:** 2023년 12월에 중단되었던 보조금을 재도입. 과거의 보편적 지원과 달리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1)가구당 연 과세소득 8만 유로 이하가 기본 자격이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소득 기준 5천 유로씩 상향. 최대 9만 유로까지 허용. 2)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는 3천 유로~최대 6천 유로(중저가 전기차 가격의 10~15%). PHEV와 EREV는 1.5천 유로~4.5천 유로.
- **프랑스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인 프랑스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프랑스의 소셜 리스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달 만에 예산(6억 5천만 유로)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음. 당시 해당 정책으로 약 한 달간 5만 대 리스 수요를 견인. 2025년에 프랑스의 전기차 수요는 47.4만 대(Flat YoY) 기록.
- **영국, 2025년 7월 16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 7억 파운드의 구매 보조금과 6300만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 생산 밸류체인 보조금 예산 발표. 2029년까지 운영예정으로, 차량가격 3.7만 파운드 이하 전기차에 대해, 1,500~3,750파운드 지급. 2025년에 영국의 전기차 수요는 73.5만 대(+28.7%YoY) 기록.

IAA에 따른 EV 및 배터리 관련 EU 원산지 요건

구분	요건	내용
전기차	대상	순수 전기차, PHEV, 수소 연료 전지차
	① 역내 조립	EU 내 최종 조립
	②역내 부품가치 비율	배터리 제외 모든 차량 부품 가격 중 70% 이상
	③역내 최소 부품 요건	구동 배터리는 셀을 포함해 최소 3개 (발효 후 3년 뒤: 셀, 양극재, BMS 포함 최소 5개)
소형 전기차	① + ② 또는 ③ 충족	

자료: EU IAA

유럽 IAA와 미국 IRA 비교

구분	유럽 IAA	미국 IRA
최종 조립	EU 내 생산/조립 필수(FTA 국가 인정)	북미 내 생산/조립(FTA 국가 불인정)
배터리 조달	배터리 제외 부품의 70% 이상 현지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2029년 100%)
핵심 광물	2030년까지 전략광물 소비량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제련, 25% 재활용을 역내에서 달성 목표 (CRMA* 법안)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2027년 80%)
보조금	충족 시 공공 조달 및 지원, 보조금 지급	소비자에게 7,500달러 크레딧(2025년 10월 중단)

참고: *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EU 핵심원자재법
자료: EU Commission

유럽 업체와 중국 업체의 협력 사례

유럽 업체	중국 업체	내용
VW	샤오펑	샤오펑 지분 5% 인수. 전기차 공동개발 및 샤오펑의 자율주행 아키텍처 활용
스텔란티스	립모터	립모터 지분 20% 인수 및 JV설립 2026년 기준 40개국 이상에 판매망 확장
	샤오펑, 샤오미	유럽 내 생산공장을 공유하거나 매각 검토 마세라티 매각 검토 중
아우디	상하이차	상하이차의 IM모터스의 전기차 플랫폼 활용
르노	지리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HORSE) 설립 지분율은 르노, 지리가 각각 45%, 아람코 10%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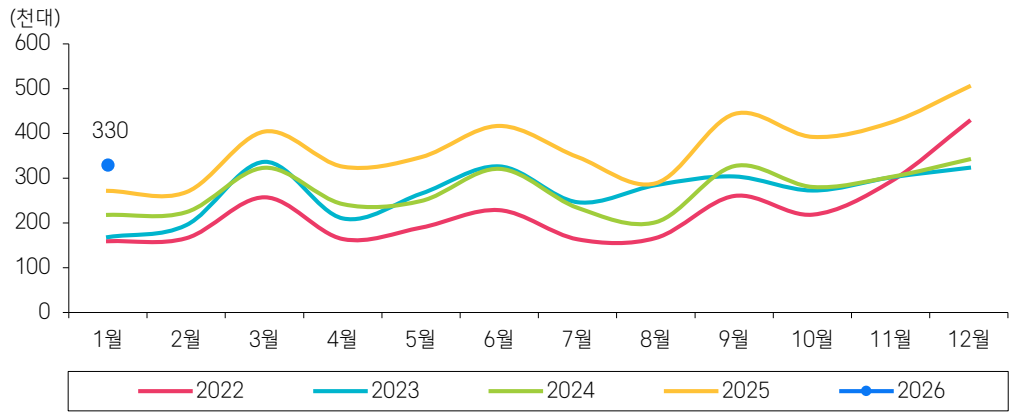
자료: 각사, 삼성증권

유럽 시장: 한국 및 중국 전기차 배터리 캐파*

(단위: GWh)	지역	2023	2024	2025	2026E
LGES	폴란드	80	80	75	60
SDI	헝가리	45	45	45	45
SK온	헝가리	18	48	48	48
한국 배터리사		**142**	**172**	**168**	**153**
CATL	독일, 헝가리	5	14	34	74
Sunwoda	헝가리	0	0	0	10
CALB	포르투갈	0	0	0	15
Gotion	슬로바키아	0	0	20	20
EVE Energy	헝가리	0	0	0	28
Envision AESC	영국, 프랑스	2	11	27	27
중국 배터리사		**7**	**25**	**81**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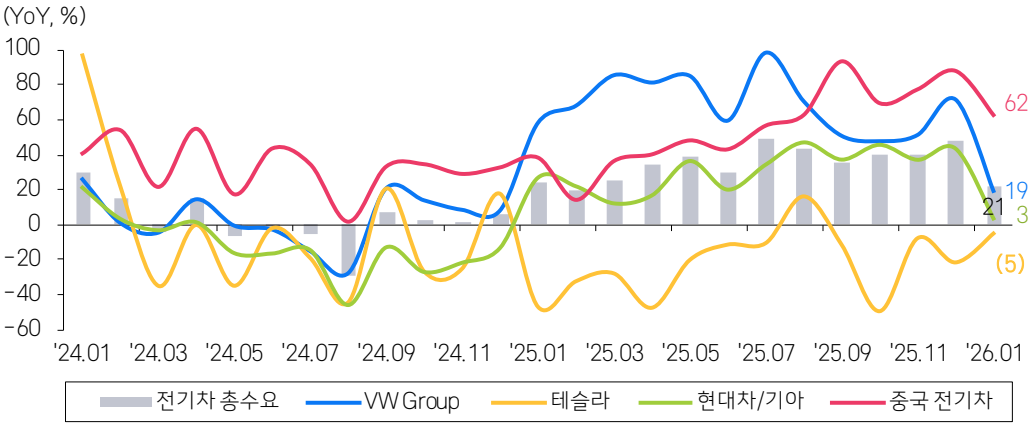
참고: *연말 설치 기준
자료: CITIC, 삼성증권

유럽(EU+동유럽): 전기차 수요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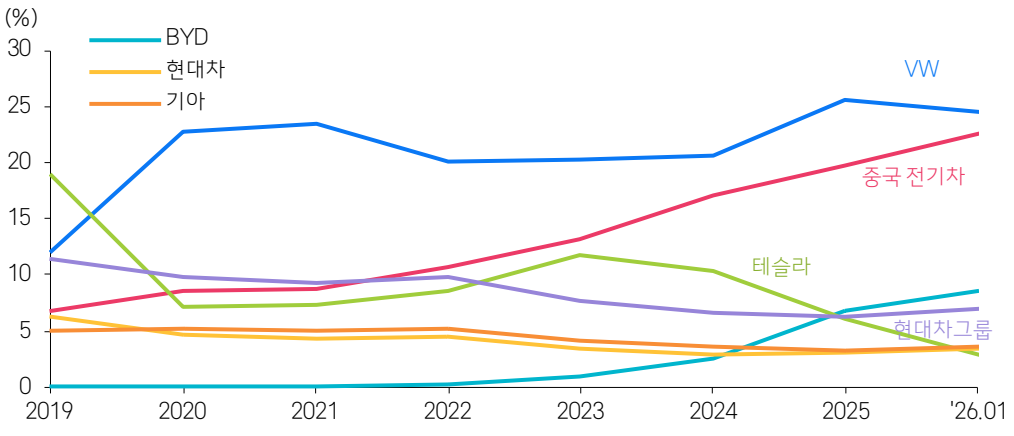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EU+동유럽): 주요 업체 YoY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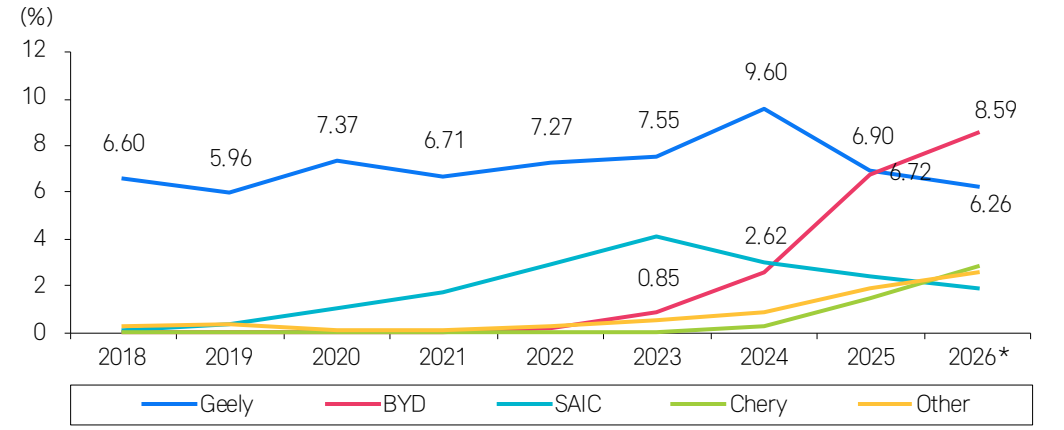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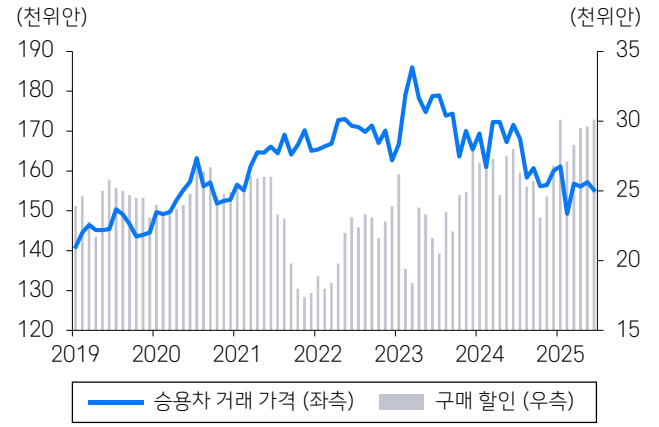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중국 업체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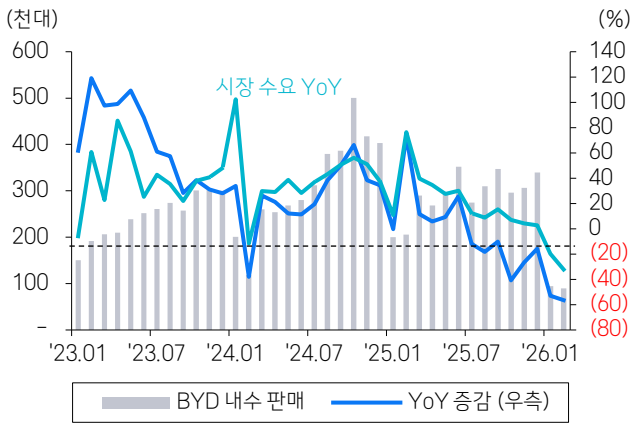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중국 시장: 승용차 거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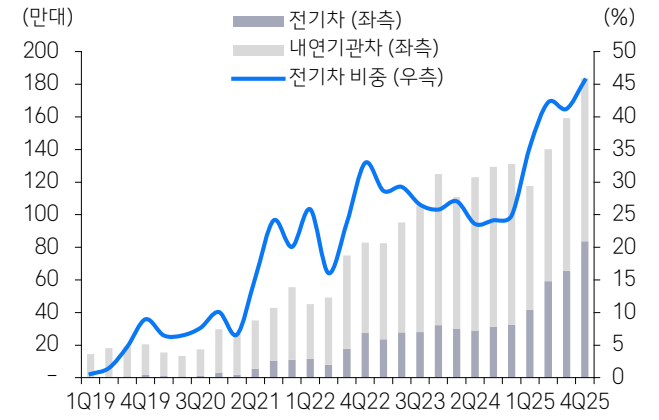
자료: Wind, 삼성증권

BYD: 중국 내수 판매 8개월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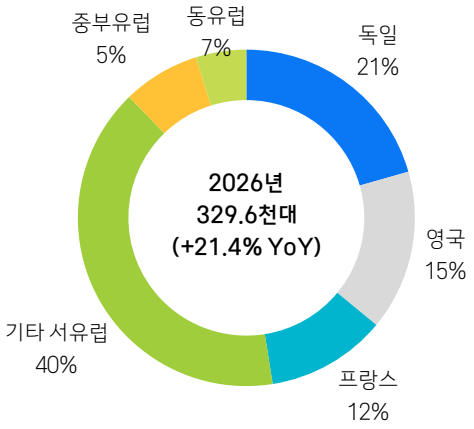
자료: CPCA, 삼성증권

중국: 자동차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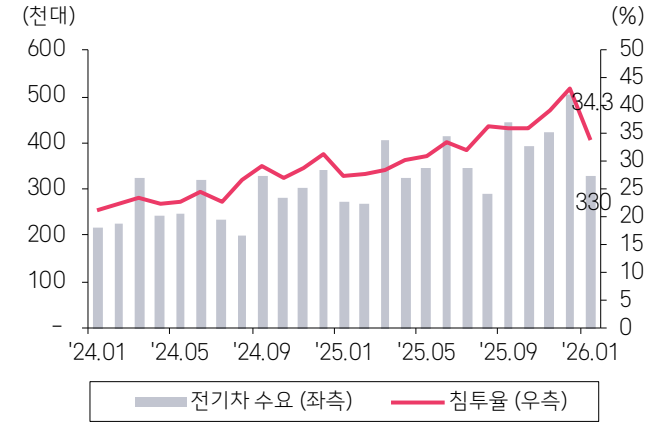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증권

유럽: 국가별 전기차 수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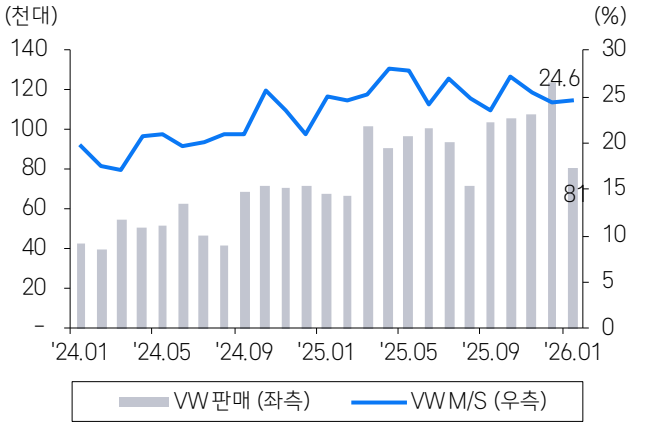


참고: 1월 YTD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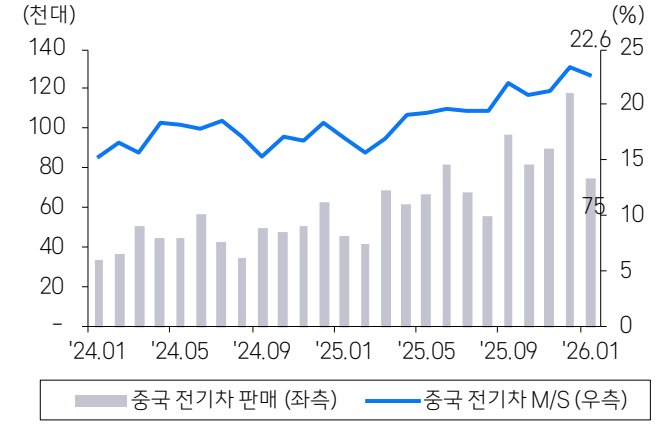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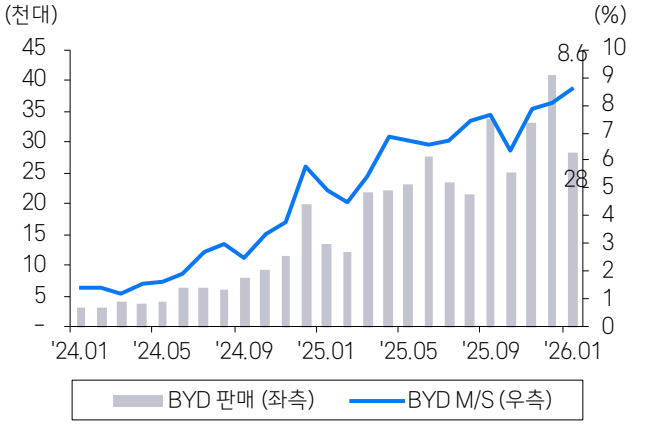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중국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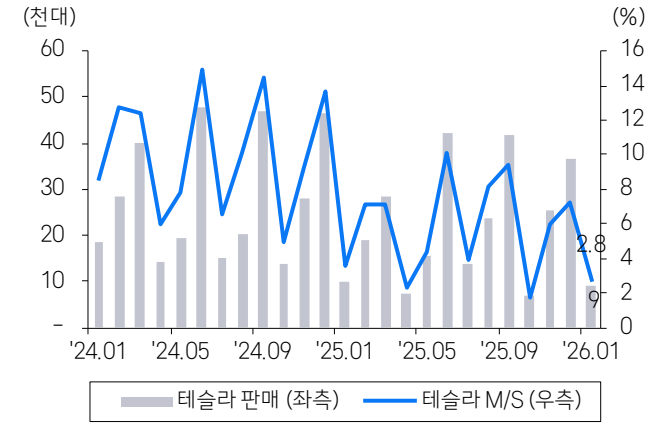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BYD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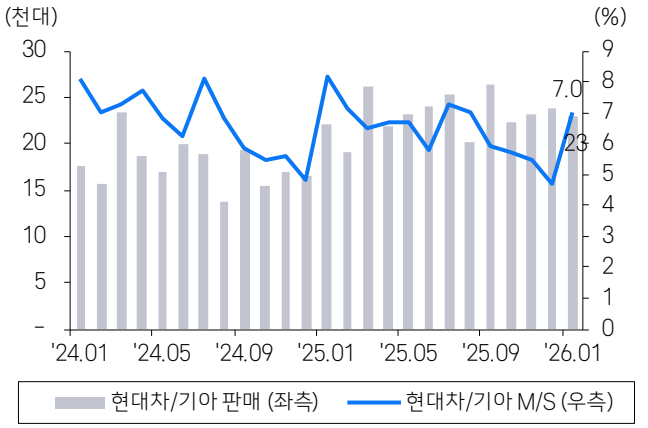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테슬라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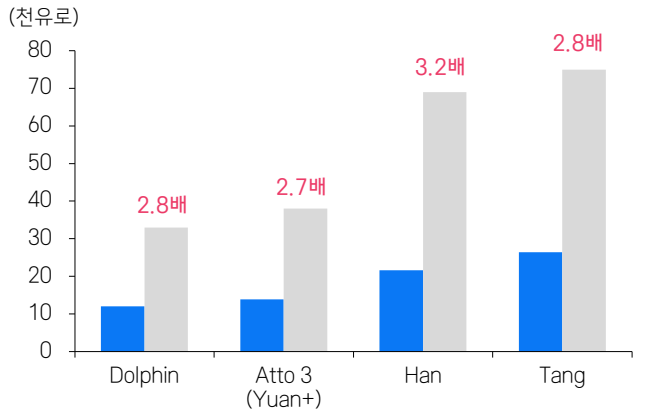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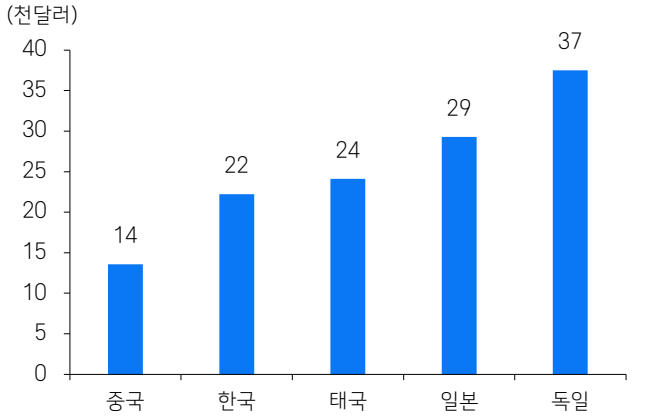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BYD 대표 모델 가격: 중국* vs 유럽



참고: * 중국 가격을 유로 가치로 환산 (1CNY=0.12EUR), 유럽은 독일 시장 기준
자료: BYD, 삼성증권

BYD: 시장별 Atto 3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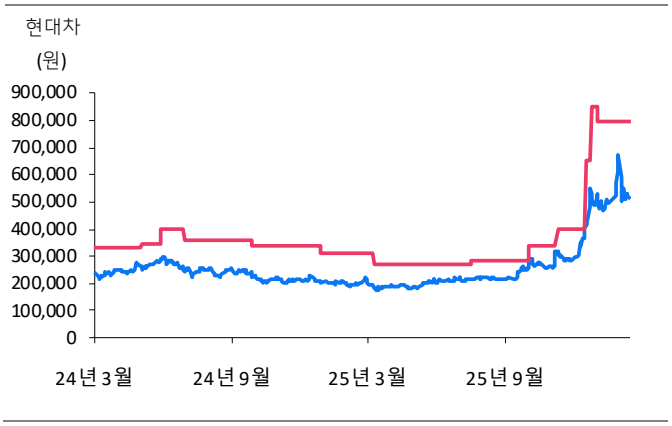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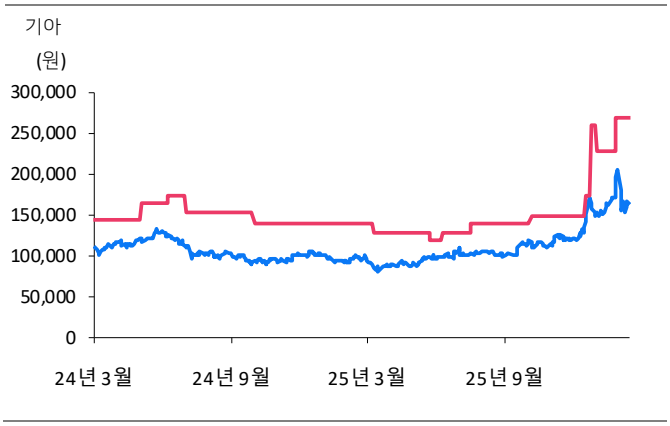
참고: 2026년 1월 30일 환율 기준
자료: BYD,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현대차												
일 자	2024/2/5	3/20	5/29	6/25	7/26	10/25	2025/1/24	4/7	8/14	10/31	12/8	2026/1/1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290000	330000	345000	400000	360000	340000	310000	270000	285000	340000	400000	650000
괴리율 (평균)	-15.25	-26.19	-21.52	-31.63	-32.30	-37.27	-34.90	-26.06	-20.49	-20.69	-22.55	-27.91
괴리율 (최대or최소)	-11.90	-16.06	-16.96	-25.50	-28.06	-33.38	-28.39	-17.41	-7.02	-7.35	1.50	-15.54
일 자	1/22	1/30										
투자의견	BUY	BUY										
TP (원)	850000	800000										
괴리율 (평균)	-40.91											
괴리율 (최대or최소)	-37.88											
기아												
일 자	2024/2/5	5/29	7/4	7/29	10/28	2025/4/7	6/20	7/7	8/14	11/3	2026/1/14	1/22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45000	165000	175000	155000	140000	13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75000	260000
괴리율 (평균)	-19.81	-24.20	-31.41	-34.54	-30.66	-30.49	-17.88	-21.50	-24.00	-20.38	-7.53	-40.63
괴리율 (최대or최소)	-11.38	-19.82	-27.83	-27.68	-23.79	-23.38	-15.75	-15.08	-14.36	-9.33	-1.66	-38.85
일 자	1/29	2/25										
투자의견	BUY	BUY										
TP (원)	230000	270000										
괴리율 (평균)	-30.12											
괴리율 (최대or최소)	-24.35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12.31 기준

매수(85.8%)·중립(14.2%)·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